

제주시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는 8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조 등과 총선 승리 공동 이행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송재호 후보 캠프 제공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가 8일 용담사거리에서 큰절 거리인사를 벌이며 지지를 호소했다. 사진=장성철 후보 캠프 제공



정의당 고병수 후보가 지역 선거구 일대에서 거리유세를 벌이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고병수 후보 캠프 제공



무소속 박희수 후보가 거리 유세를 벌이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박희수 후보 캠프 제공

민생 현장 방문 표발 다지기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기호 1번)는 8일 제주시 한림읍 일대를 돌며 표발 다지기에 주력했다.

또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조, 전국금융산업노조, 공공노련제주본부, 공공연맹제주본부, 금융노조제주본부, 연합노련제주본부, 제주도향운노조 등과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21대 총선 승리 공동 이행 협약식'도 가졌다.

송 후보는 이날 한국노총 5대 비전 20대 공동 약속 실현 협력, 노동자 권리보호 및 권익향상 노력, 공공부문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공성 강화 등을 약속했다. 오은지기자

“송 후보는 두루뭉술한 구호 뿐 내용 없다”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기호 2번)는 8일 외도지역에서 촘촘한 현장 유세를 이어가며 표심을 공략했다.

또 용담사거리에서 큰절 거리인사를 벌이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장 후보는 13일째 큰절 거리인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날 장성철 후보 선거사무소 공보팀장은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의 전략공천 문제를 지적하면서 “송 후보의 공약과 토론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두루뭉술한 구호만 있고 구체적 내용은 없다”고 비판했다. 오은지기자

“4·3특별법 개정 최우선 과제”

정의당 고병수 후보

정의당 고병수 후보(기호 6번) 후보는 8일 제주시 연동, 애월읍 등 지역 선거구에서 거리유세를 벌이며 “4·3 유족들의 염원과 역사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4·3특별법 개정을 발의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고 후보는 “4·3특별법이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될 운명에 놓여 있다”며 “이는 거대 양당차원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미적거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상정 당대표도 지난 3일 4·3추념식 참석차 제주를 방문했을 때 중앙당 차원에서의 노력을 천명했다”며 “4·3특별법 개정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민원 전담보좌관제 도입”

무소속 박희수 후보

무소속 박희수 후보(기호 9번)는 지역 민원 해소 및 정책 발굴을 위한 ‘민원 해소 전담 지역보좌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8일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지역구 일대에서 거리 유세를 벌이며 “민원 전담보좌관 도입은 민원 제기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해결기간 역시 장담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이라며 “나아가 담당 직원의 책임 떠넘기거나 행정의 적극성 부족으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의원 소환제도’도 도입해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책임감 등 자정 능력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석기자

제주시을 선거구

“노동존중사회 실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기호 1번)는 8일 제주시 일도2동 선거사무소에서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공공부문노동조합과 ‘노동존중사회의 실현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공공연맹 제주지역본부, 공공노력 제주지역본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이 함께 참여했다.

오 후보는 이날 협약으로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권익향상, 공공부문의 발전·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오 후보는 “제주도내 비정규직 및 소규모기업 노동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8일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공공부문노동조합과 정책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오영훈 후보 캠프 제공

의 차별 ZERO화와 일자리 지원·확대를 통해 제주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부상일 대변인 “오영훈 선거법 위반 고발”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기호 2번) 캠프는 8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창호 대변인은 “논문 표절과 관련해 ‘표절하지 않았고, 직접 썼다’는 오 후보의 방송 발언과 주장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상일 후보는 지난 1일 한라일보·제민일보·JIBS가 개최한 제주시을 후보 토론회에서 오영훈 후보가 지난 2003년 6월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학위논문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 캠프는 8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진=부상일 후보 캠프 제공

서귀포시 선거구

서귀포 신시가지 집중 유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기호 1번)는 8일 서귀포 신시가지 일대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위 후보는 오전 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아침인사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빠레브호텔 사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고 삼주아파트 앞에서 개릴라 유세를 펼쳤다.

이와 함께 이날 위 후보는 선거사무소에서 공공노련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21대 총선 승리 공동 이행 협약식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8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 노동조합과 21대 총선 승리 공동 이행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위성곤 후보 캠프 제공

이날 위 후보는 “땀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기호 2번)는 8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과다한 업무를 가중시키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인증 수개월 전 부터 집중적인 준비를 한다. 준비 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이 많고 보여주기식 평가에 그친다는 목소리가 보육 현장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는 “평가인증이 보육종사자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평가인증 주기를 기존 2~3년에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는 8일 강정체육공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영농폐기물 분리배기 현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사진=강경필 후보 캠프 제공

서 3~4년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평가인증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태윤기자

농약없이 감자·당근·양파재배 성공

고품질 농산물 생산 ⇒ 하하농법이 최선이다

썰파고와 V패스로 농약없이 재배한 농가가 있어 동네 농업인들 사이 소문이 자자하다고

썰파고	·나노 유황으로 만든 320여가지 농약성분이 없으며 살균·살충 효과가 있다
V패스	·양자에너지와 희토류 생분해 복합제제로 세균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물의 회복과 면역력 증강으로 식물 우성세포의 복원을 촉진시킨다

당근 생산농가 구좌읍 세송로 김 정 애 (010-5036-1235)

양파 생산농가 대정읍 신도리 문 형 원 (010-2698-2476)

감자 생산농가 대정읍 상모리 박 성 국 (010-3030-0907)

브로콜리, 양배추, 무우, 마늘 등에도 좋은 효과가 나타나 기대가 됩니다 (초기 살충제 혼용)

농가에서는 농약값이 절반으로 줄어 하하 웃는 모습이 정말 좋아요

(주)포트라 제주시사

제주시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1포(100~500평) 사용

취급 품목 아미노산, 휴믹산, 풀빅산, 해조박, 유황제품 (50~100)평 사용 100%발효 : 유박, 퇴비제품

관주열면 시비용 칼슘제, 색상, 당도, 뿌리발근, 생육촉진, 역제제, 광합성지원제품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면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